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기준(안)에 대한 전국순회 공청회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은 환경부의 후원으로 10월 17일(토)부터 20일(화)까지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기준(안)에 대한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가졌다.」

(원주 : 17일 오전, 대전 : 19 일 오전, 광주 : 19일 오후, 창원 : 20일 오후)

21세기 한국 국립공원정책 포럼

지난 9월 18일~19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경실련, 녹색연합, 대한산악연맹, 한국생태학회, 생태보전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및 학회가 공동으로 21세기 한국국립공원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한국 「국립공원 정책현황과 관리실태」와 「한국국립공원 정책 및 관리개선대책」의 토론과 정책 건의안 심의, 채택등이 있었다.

국립공원 야생동물 방사의 날 행사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지부(지부장 김종섭)는 9월 27일(일) 남원시 산내면 반선마을 뒷산에서 지부회원 30여명과 관리소 직원이 남원산악회 이병채회장의 후원으로 평 30여마리를 방사했다.



남한산성지부 창립

본회 남한산성지부가 지난 8월 27일 관악구 봉천동 소재 한성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유관단체장과 내빈 그리고 정회원 8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지부장으로 김진욱씨가 선출되었고 부지부장에 이경우씨 사무국장에 신부웅씨 운영위원에 함기만, 정찬식, 고영자, 서후석, 박종선씨가 각각 선출되었고 앞으로 남한산성 애호활동 및 정화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국립공원 30년사 발간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대우)은 지난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지난 30년간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발굴하고 앞으로의 국립공원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할 「국립공원 30년사」를 발간하였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년간의 작업끝에 발간한 「국립공원 30년사」는 각계 전문가의 귀중한 원고가 게재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관리의 중요한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